



開眼手術의 意義

金 南 洙

(수원교구장·주교)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1984년은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이었다. 지난 5월에는 敎皇님을 한국 땅에 모시고 화려한 103위 한국 순교자들의 諡聖式을 거행하였다. 이것은 한국 천주교회의 영광이었고 한국 민족의 기쁨이었다. 우리는 200주년을 지내기 위하여 5개년의 기간을 두고 준비에 열을 올렸다. 순교자들의 생활을 본받자는 精神運動 부서를 비롯하여, 교황님 환영과 기념大會를 책임진 行事 부서, 300년대 한국 교회의 진로를 모색하는 司牧會議 부서, 각종 기념 사업을 추진하는 事業부서 등 집행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03위 諡聖을 비롯한 6개 종목의 記念事業 가운데서 가장 많은 예산을 開眼手術 사업에 배당하였다. 이미 4억원 예산에 해당되는 개안수술이 끝났지만 등록을 마치고 수술을 기다리던 600명을 계속해서 수술해 주기 위하여 금년에 다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4개 집행 위원회의 총예산이 32억원이었는데 그중 20% 이상이 개안수술에 투입된 셈이다.

動 機

개안 수술 희망자 전원을 수술해 주지 못할 것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우리가 이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분들도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맹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도 많다는 반론도 없지 않았으나, 200주년 기념 사업으로서 개안수술을 선택했던 이유는 200주년 표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땅에 빛을” 비추어 보자는 표어가 개안수술의 동기였다. “이 땅에 빛을” 비추시는 분

은 바로 예수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이 표어의 일차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자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의 생활이 먼저 이웃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겠다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하였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이 땅의 빛이 되기 위하여 자선 사업의 모범을 보여야 하겠다는 뜻이 작용하였고, 그 많은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서 맹인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바로 빛을 못보는 사람들이기에 빛을 보게 해 주는 것이 표어에 가장 알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개안 수술을 받고 완쾌된 분들과 함께 감사 미사를 봉헌하였을 때 그분들의 기쁨을 참시나마 잊볼 수 없었다. 미사에 못나오신 분들도 분명 기쁠 것이다. 개안 수술 대상에는 신앙이나 종파의 차별을 두지 않았던 것이 더욱 뜻깊은 일이었다. 천주교 신자들 뿐 아니라, 갈라진 형제 자매들과 비신자들까지 고루 혜택을 받도록 했던 것이 자랑스럽다.

自力의 確信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자선 사업을 했지만 외원에 의존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안 수술만은 200살 된 한국 교회의 성숙을 보여주는 듯, 자체 신자들의 헌금으로 개안 수술비를 마련하였고, 모든 가톨릭 병원과 몇몇 개인 신자 병원과 비신자 병원까지 협력해 주었다는 데서 우리도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벌써부터 나환자들을 돕기 위한 구라주일 헌금이 있었고, 인성회를 위한 사순절 모금이 있어 왔지만 지난 추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또 다시 대림 제 3 주일을 자신의 날로 정하고 헌금을 모아 불우한 이웃을 돕게 하자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된 것도 이번 개안 수술 사업에서 자신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의 實踐

개안 수술은 교회가 사랑을 외칠 뿐 아니라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 준 가장 뚜렷한 증거였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 2, 20. 26.). 이것은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이다. 현대의 사람들은 듣기보다 보기를 더 원한다.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도 행동에서 찾고 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을 선포하고 사랑을 외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못하다. 물론 교회가 남들 모르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자신이 말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가 사랑을 과연 실천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는 일

이다. 신자들의 헌금이 교회 자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뿐 아니라 사랑의 실천인 자선 사업에도 상당 부분 할애되어야 하겠다.

한편으로 외원에 의존하던 교회 운영의 여러가지 자선사업 기관들을 의원없이 우리의 힘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겠고, 300년대의 한국 교회는 더욱 성숙하여 국내 자선사업에서 국제적 자선사업에까지 원조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지금까지의 수혜자 위치에서 원조 제공자의 위치로 성숙해 가야 하겠다.

가톨릭病院의 存在價値

이번 개안 수술에 협력해 준 가톨릭병원협회 회원 병원들은 개안 수술의 성과를 자세히 분석 검토하고 가톨릭 병원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여 자선 분야를 넓혀 나감으로써 가톨릭 병원의 참 모습을 갖추는 계기를 삼아야 하겠다. 가톨릭의 이름을 가진 병원이 바로 모든 환자와 그 보호자들 앞에 교회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병원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겠기 때문이다. 200주년에 교회는 병원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 앞으로도 가톨릭 병원을 통해서 교회의 사랑 실천의 모습을 계속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겠다.